

과학기술분야 미래직업

김희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대는 불확실성이 많은 미래예측이 쉽지 않은 시대이다.

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코닥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속속 무너지고, 수십년간 승승장구하던 소니를 필두로 한 일본의 전자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에 관련된 신생기업들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바꾸면서 산업시스템의 근간을 격동시키고 있다.

새로운 개념, 효율, 기술이 등장하여 이들의 생산재화가 임계 크기를 넘어서면 신산업이 형성되고, 신산업이 형성되면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다.

모든 생명체처럼 직업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그 중 수렵인이나 농업인처럼 인류 초창기부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 키펀처, 버스 차장같은 직업은 필요가 없어지거나 경비문제로 수십년 이내에 사라졌다.

여러 노동관련 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래직업이 유망할까를 연구하여 가끔 발표하고 있다.

미래 유망직업은 결국 미래 수요가 큰 분야에서 창출되고 발전하게 된다.

인간의 수명 연장, 질병 퇴치,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에 관련된 분야,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에 관련된 교육분야, 인간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각종 기계, 정보기기 개발 및 제조분야, 인간의 감성을 증진하고 심리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관련된 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적방안을 찾는 금융기술분야 등등이 미래에 유망한 직업군이 될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직업들에 한정하여 미래 유망직업들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현 시점에서 연봉이 높은 직업군과 이미 발표된 기존 유망직업들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개의 유망직업들을 추가하고자 한다.